

군산시, 평생교육분야 세계 3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

전 세계 37개국 482개 회원도시 대상 실시

군산시가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 도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지난 1일 해당 홈페이지(www.edcities.org)를 통해 군산시를 세계 우수교육도시로 선정, 오는 11월 16일 포르투갈 카스 카이스시에서 개최되는 IAEC 세계총회에서 우수교육 도시상을 수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수교육도시상은 '참여를 통한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through Participation)'이라는 IAEC 세계총회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정신에 부합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혁신 시책을 펼친 도시에 주어진다.

군산시는 전 세계 37개국 48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교육 도시상에 공모하여, IAEC 및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및 평생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과나후아토(멕시코), 세부알(포르투갈)과 함께 세계 3대 우수교육도시에 선정됐다.

IAEC 사무국은 "군산시의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심을 이끌어내 근대역사



군산시가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 도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했으며 이는 전 세계 평생교육 회원도시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우수교육도시 선정 배경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립형 평생학습도시를 모토로 꾸준히 추진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제교육 회원도시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산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강 시장은 "앞으로도 선진교육도시와의 평생교육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에서도 활발

한 교류를 통해 군산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평생교육 회원 도시 간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해 1994년 설립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7개국 48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군산시는 2008년 10월에 가입해 2009년 6월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집행도시로 3회 연속(~2022년) 선정됐으며, 지난 2010년 10월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군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철저 당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가 5일 출수 전후를 중심으로 벼병해충 종합방제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예방결과에 따르면 아직 벼멸구, 흰등벼구, 흑령나방과 같은 벼 병해충이나 발달성 해충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출수기 이후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잎집무늬마름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 즉 밀싹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용한 논에서 병이 진전이 빨라지고, 세균성 벼알마름병은 벼 출수기 강우 시 많이 발생되는데 병이 발생하면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병과 동시방제가 효과적이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이 많았던 벼 먹노린재가 월동하여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일부 출현함에 따라 1차 방제를 실시하였으나 그 중 살아남은 약충과 성충이 8월중에 벼출기에 구질을 파괴 흡즙하여 심하면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다른 해충과 동시 방제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지는 "병해충은 발생 후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출수기를 중심으로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를 벼 병해충 관리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4,000부,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작은 영화관 운영

익산시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 이달 31일까지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주민들을 위해 작은 영화관을 운영한다.

복지관은 8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와 저녁시간으로 나누어 2회씩 총 14회에 걸쳐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쿨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작은 피서공간이자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마실 나와서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영될 영화와 시간표는 복지관과 황등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KBL, 2018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협약식

10일부터 12일까지 군산에서 열려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KBL(총재 이정대)은 지난 3일 군산시청에서 2018 유소년 클럽농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정대 한국농구연맹(KBL)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유소년 클럽농구대회 개최와 향후 지역사회 및 한국농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농구대회"는 2007년부터 올해로 12회째를 맞



는 국내 최대의 유소년 농구대회이며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KCC의 제2의 연고지인 군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KBL 각 구단 산

하 초등학교, 중학교 유소년 클럽 학생 약 500여명이 참가해 열정 가득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풍부한 군산에서 KBL 유소년 클럽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는 선수 및 가족들을 포함해 1,500여명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선수단이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2018 전국체전 성공개최 코리아너포터즈 출범 행사

북한팀 선수단 참가로 한민족·인류평화기여 평화체전 다짐

코리아너포터즈단이 2018 제99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와 북한팀 선수 초청 등을 위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코리아너포터즈단은 전국단위 규모로 회원수만도 10만여명에 달해 홍보 활동에 기대된다.

지난 4일 오후 익산시 스키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장현을 익산시장, 문상주 코리아너포터즈 총재, 시민서포터즈,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 회원, 코리아너포터즈회원, 일반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전국단위 규모를 갖춘 코리아너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

리는 행사로 신명나는 익산시립풍물단의 공연과 예진예술단의 현대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동영상 상영, 코리아너포터즈 활동선서, 연예인 공연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코리아너포터즈단 활동선서에서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는 물론 북한팀 선수단의 참가로 한민족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체전 개최를 다짐했다.

장현을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코리아너포터즈가 적극 나서 감사하다"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코리아너포터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했다.

문상주 코리아너포터즈 총재는 "이런 뜻깊은 체전에 코리아너포터즈가 동참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익산시에 감사하며, 우리 코리아너포터즈가 전국체전 성공개최는 물론이고 북한팀 선수단 초청에도 적극 나서 평화·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너포터즈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목표로 전국규모의 시민단체·직능단체·교육 등 2,00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는 물론 외국 선수단 환영·환송행사에 앞장서고 경기 응원에 동참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군산시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에는 출국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용득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보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심리검사·상담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지원상담실 '마음건강클리닉'을 아동 청소년 상담실과 통합해 운영한다.

'마음건강클리닉'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심리검사와 그에 따른 상담이 실시되며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심리검사는 보건소 1층 마음건강클리닉에서 실시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따라 별도의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